특집 : 북방농업

南北韓間, 韓中間의 농산물교역 현황과 전망

김 운 근*

1. 서론
2. 남북한간, 한중간의 농산물교역 추이
3. 3국간 농산물 교역의 문제점
4. 남북한간, 한중간의 농산물교역 전망
5. 결론

1. 서 론

제2차 세계 대전후 열강에 의해 첨예화되었던 냉전시대는 소련의 해체, 동구 사회주의의 붕괴, 독일의 통일, 그리고 중국의 개혁·개방정책에 힘입어 이미 그 막을 내리기 시작했다. 특히 1992년 8월 24일 한·중 수교와 1994년 7월 김일성의 급작스런 사망에 따라 동북아시아 지역은 정치·외교면에서 커다란 변화가 예상된다. 이러한 변화는 앞으로 한·중 경제협력을 더욱 증대시키고 나아가서는 남북한간 경제교류, 긴장 완화 및 평화통일의 기반조성 등에 시사하는 바가 크며, 동시에 정치, 경제면에서 무한한 도전과 도약의 기회를 제공해 줄 것으로 예상된다.

금세기의 국제사회는 경제논리를 존중하면서 냉전시대의 군사적 반목과 대립에서 벗어나 상호 협력의 자세로 지구촌 공영시대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즉 대표적인 지역경제 협력체로는 유럽연합(EU: European Union),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North America Free Trade Agreement), 아세안 국가들의 동남아 경제권 구상, 동북아시아 국가들의 동북아 경제권 구상, 한국과 중국의 황해 경제권 구상, UNDP의 두만강 개발계획구상 등이 관심을 모으고 있다. 바로 이러한 추세가 공영시대를 구축하기 위한 대표적인 노력이라 하겠다.

따라서 이러한 현실을 감안할 때, 장차 남북한 및 중국 3국간에 전개될 경제교류 협력은 동북아시아의 정치·경제 발전과 안정에 매우 중요하며, 三國間의 적극적인 교류협력과 큰 역할이 기대되는 시기이다.

아직 남북한간에는 냉전 상태가 지속되고 있기는 하나 핵문제로 야기된 미북간의 최근의 협상타결 그리고 김일성의 사망에 따른 개혁·개방파들의 부상 등을 고려할 때 김일성 사망은 한중수교와 함께 한국 경제에 새로운 활동무대와 도약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시대적 변화와 기회

* 硏究委員

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한편, 동북아시아 정치·경제의 발전과 안정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종전의 소극적인 3국간의 경제교류 협력 태도에서 벗어나 보다 적극적인 접근자세로 경제협력 사업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한반도의 100배나 되는 광활한 국토와 12억 인구로 구성된 거대한 중국경제를 한국입장에서 주관적으로 검토한다면, 우선 방대한 상품시장으로서의 활용가치, 보완관계 구축을 위한 협력가치, 저렴한 노동력을 활용한 수출상품 생산기지로서의 개발가치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북한 또한 저렴한 노동력 활용과 풍부한 지하자원 등 잠재력이 있어 이들 국가와 상호 보완성 있는 상품의 교류는 물론 상호 경쟁·협력하는 경쟁적 공존관계를 이룩할 수 있을 것이다. 경제교류 및 협력사업의 추진은 장기적으로는 남북한이 통일 이전에 경제·사회의 각 분야에서 가능한 부문부터 교류·협력을 통해 신뢰기반을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점차 남북한 경제통합의 실현과 민족의 동질성을 회복하는 데 일조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독일 통일의 직접적인 도화선은 고르바초프의 개혁·개방정책이지만 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오랜 기간 동서독간 교류협력을 통해 구동독인 스스로가 사회주의 체제를 거부하고 민주정치와 시장경제를 선택한 결과라는 사실은 남북한 양체제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특히 한중간의 외교관계 수립은 북한사회의 개방과 남북한간의 화해협력의 분위기 조성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며 동시에 평화통일을 추진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南北韓과 東西軸을 이루고 있는 중국과의 경제교류 협력이 크게 확대될 전망이므로, 가까이는 러시아의 극동지역 그리고 몽골 등 동북아 국가들과의 경제협력도 더욱 활발히 전개될 전망이며, 동시에 한국

표 1 **연도별 반입승인 품목 현황**

단위: 천달러

연도	농산물	수산물	광산물	철강·금속	섬유류	화학제품	기 타	계
1988	-	233	-	660	-	-	144	1,037
1989	510	357	3,596	15,945	1,479	-	348	22,235
1990	6,843	2,080	3,257	6,625	249	89	1,211	20,354
1991	17,505	25,821	23,152	91,720	2,342	3,141	2,315	165,996
1992	24,637	13,685	31,699	123,395	3,590	1,630	2,049	200,685
1993	16,049	4,168	1,084	150,999	11,083	617	4,335	188,335
계	65,544 (10.9)	46,344 (7.7)	62,788 (10.5)	389,344 (65.0)	18,743 (3.1)	5,477 (1.1)	10,402 (1.7)	598,642 (100)

주 : ( )안은 총액대비 %

1) '93년 기타에 전자제품 37천달러 포함 .

자료: 통일원 .

경제의 활동반경이 그만큼 확대될 것이다.

본연구는 남북한간 그리고 한중간의 3국간의 경제교류가 앞으로 더욱 진전될 것이라는 전제하에 지금까지 진행된 농산물 교류과정에서 이미 야기되었거나 장차 야기될 각종 문제점들을 한국경제의 관점에서 검토·평가하는 동시에 앞으로 한국과 북한(중국)간의 교류 전망과 중장기적 대응방안을 강구해 보고자 한다.

2. 남북한간, 한중간의 농산물 교역 추이

2.1. 남북한간의 농산물 교역 추이

남북한간의 교역은 1988년 7월 「7.7 특별선언」에서 대북한 교역의 문호를 개방한 후 꾸준히 증가하여 왔다.

1988년 대북경제 개방 조치이후 1993년까지 북한으로부터 반입·승인된 금액을 보면 598,642천달러이며 이 중 농산물은 65,544천달러로 10.9%를 차지하고 있으며, 수산물은 46,344천달러로 7.7%를 차지하고 있다.

반입 승인된 금액 중 반입 통관된 금액은 477,685천달러로 80%가 반입되었다. 농산물 반입액은 30,463천달러로 반입승인액의 46.5%, 수산물은 9,626천달러로 21%의 통관실적을 보여 주고 있다. 1990-93 반입 승인된 농산물 중 대표적인 품목이 감자, 한약재, 호두, 땅콩, 버섯류, 건고추, 잎담배, 건고사리 등이며 이 가운데 대부분이 반입되었다. 수산물은 반입 승인된 품목의 경우 냉동명태, 냉동오징어, 건오징어, 냉동조기, 냉동골뱅이 등 다양하며 대부분이 반입되었다.

이와 같이 반입 통관 품목의 양이 미미한 것은 북한의 모든 농산물 생산이 계획생산체제로 되어 있는데다가 계획생산 우선 순위가 부족한 식량을 보충하는 데 주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식량자급 위주로 생산을 독려함으로써 대외적으로 반출될만한 여유있는 품목과 물량이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즉

표 2 **연도별 대 북한 반입통관 품목 현황**

단위: 천달러

연도	농산물	수산물	광산물	철강·금속	섬유류	화학제품	기 타[2]	계
1989	414	174	1,094	15,073	1,311	-	589	18,655
1990	4,931	392	1,599	4,529	204	-	623	12,278
1991	5,054	3,052	6,173	86,044	1,599	1,672	2,139	105,723
1992	10,390	5,130	14,437	125,418	3,516	1,248	2,724	162,863
1993	9,674	878	1,371	154,263	8,945	663	2,372	178,166
계[1]	30,463	9,626	24,674	385,317	15,575	3,583	8,447	477,685
	(6.4)	(2.0)	(5.2)	(80.7)	(3.3)	(0.6)	(1.8)	(100)
	(46.5)	(20.8)	(39.3)	(99.0)	(83.1)	(65.4)	(81.2)	(79.8)

주: ( )안은 총액대비 %

1) 하단의 ( )는 반입승인액에 대한 반입통관 비임.

2) 1993년 기타에 전자제품 80천달러 포함.

표 3 **연도별 대 북한 주요 반입승인 농림수산물**

금액: M/T, 천달러

1991			1992			1993		
품 목	수 량	금 액	품 목	수 량	금 액	품 목	수 량	금 액
냉동명태	16,017	6,370	한 약 재	2,780	8,103	호 두	4,887	8,215
냉동조기	1,200	6,380	호 두	3,248	5,579	한 약 재	1,955	2,879
한 약 재	1,482	5,915	냉동명태	11,500	5,072	냉동조기	486	3,055
냉동홍어	2,315	4,720	건고사리	703	3,586	건고사리	462	1,718
호 두	1,430	2,507	냉동조기	630	2,384	건 고 추	300	600
냉동오징어	1,870	2,435	건 고 추	1,000	2,000	은 행	100	500
건오징어	303	2,435	냉 동	300	1,590	낙 화 생	500	405
낙 화 생	2,300	2,205	냉동골뱅이	1,000	1,300	냉동명태	1,000	310
건 고 추	1,000	1,930	버 섯 류	122	1,244	생 백 합	294	302
버 섯 류	254	1,722	잎 담 배	430	1,049	콩나물콩	500	300
감 자	7,000	1,658	기 타		6,200	기 타		2,092
냉장명태	2,000	1,200						
기 타		3,804						
계		43,281	계		38,107	계		20,376

자료: 통일원.

표 4 **연도별 대 북한 주요 반입통관 농림수산물**

금액: M/T, 천달러

1991			1992			1993		
품 목	수 량	금 액	품 목	수 량	금 액	품 목	수 량	금 액
한 약 재	621	2,583	한 약 재	1,688	4,563	한 약 재	744	2,009
냉동명태	4,239	1,718	냉동명태	7,514	2,826	호 두	2,145	3,627
냉동홍어	391	917	감 자	6,259	1,882	고사리류	424	1,653
원목(CBM)	6,684	532	호 두	1,008	1,781	건도토리	1,510	602
호 두	297	424	냉장명태	1,267	1,393	박하기름	69	346
버 섯 류	59	382	고사리류	277	811	생 백 합	220	278
고사리류	120	228	건도토리	1,256	505	냉동명태	627	231
감 자	1,776	214	버 섯 류	71	461	피 율 무	205	229
낙 화 생	150	203	냉동갈치	160	375	버 섯 류	39	185
복 어 류	47	171	박하기름	33	118	냉장명태	132	130
기 타		315	냉동홍어	30	105	원 목	1,012(CBM)	112
			기 타		700	녹 두	150	112
						기 타		763
계		7,687	계		15,520	계		10,277

자료: 통일원.

사전계획이 없는 우발적인 무역거래는 이루어지기가 어려움을 보여 주고 있다.

1989-93년까지의 반출승인 금액은 54,022천달러이었으며 이 중 농수산물은 2,651천달러로 4.9%를 점하고 있다. 반출통관된 금액은 25,797천달러로 반출승인금액의 47.8%로서 반입통관비율 80%에 비해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다.

이 중 농수산물은 1,683천불이 반출통관되어 반출 승인금액 2,651천불의 63.5%의 실적을 나타내고 있으며 반출승인된 품목은 쌀 5,000톤, 마늘 5,000톤, 양파 500톤, 마른김 1,450속이었으나 쌀 5,000천톤과 마늘 1,000톤만, 마른김 1,126속이 반출되었다.

그러나 쌀 5,000톤에 대한 대응품이 아직 반입되지 않고 있으며 받았다는 의사표시조차 없는 상황이다. 마늘도 1992년도의 과잉

표 5 **연도별 반출승인 및 통관 농수산물**

금액 : M/T, 천달러

	1991			1992			1993		
	품 목	수 량	금 액	품 목	수 량	금 액	품 목	수 량	금 액
승인품목	쌀	5,000	1,750	마 늘	5,000	350	마른김	1,450속	6
				양 파	500	35			
통관품목	쌀	5,000	1,607	마 늘	1,000	70	마른김	1,126속	6

자료 : 통일원.

표 6 **한국의 연도별 대 중국 농림수산물 수출입 동향**

단위: 백만달러, %

		연 도 별			증 감 률	
		1991	1992	1993	92/91	93/92
수출	국가전체	2,371.0	4,492.8	5,151.0	89.5	14.7
	농림수산물	12.5	13.4	34.6	7.2	158.2
	ㅇ농 산 물	2.0	4.5	6.7	125.0	48.9
	ㅇ축 산 물	0.6	0.7	0.1	16.7	▲85.7
	ㅇ임 산 물	9.4	7.6	18.2	▲19.1	139.5
	ㅇ수 산 물	0.5	0.6	9.5	20.0	-
수입	국가전체	3,440.6	3,724.6	3,929.0	8.3	5.5
	농림수산물	823.1	1,079.6	1,055.0	31.2	▲ 2.3
	ㅇ농 산 물	722.5	954.7	906.2	32.1	▲ 5.1
	ㅇ축 산 물	33.5	38.0	29.3	13.4	▲22.9
	ㅇ임 산 물	38.1	46.7	74.8	22.6	60.2
	ㅇ수 산 물	29.0	40.2	44.7	38.6	11.2
무역수지	국가전체	▲1,069.5	769.9	1,222.0	-	59.1
	농림수산물	▲ 810.6	▲1,066.2	▲1,020.4	31.5	▲ 4.3

자료 : 농림수산부 농업협력통상관실, 「1993년 농림수산물 수출입 동향」, 1994.3.

생산에 따른 정부수매물량 중 5,000톤을 북한산 메밀과 물물교환 계약을 맺었으나 1차로 1,000톤을 반출한 후 바로 대응품 반입이 되지 않아 잔여물량은 보내지 않았다. 대응품은 콩나물콩으로 1994년 2월 28일까지 반입키로 계약을 변경조치 하였으나 핵문제 등으로 8월말 현재까지도 미해결 상태에 있다.

2.2. 한중간의 농산물 교역 추이

한중간의 교역은 수교이전에도 홍콩 등을 통한 간접교역 형태로 크게 증가하여 왔으며 1984년까지는 교역규모가 5억달러도 되지 않았으나 중국의 개방화와 국제정치환경의 변화 등에 힘입어 한·중교역은 수교직전인 1991년에는 이미 58억달러에 달하였다. 1992년 8월 한·중간 정식 국교가 수립되면서 교역액은 82억달러로, 1993에는 90억달러로 증가하였다. 한국의 대중국 무역수지도 점차 흑자로 전환되어 1993년에는 12억달러가 넘는 무역흑자를 기록하였다.

올들어 6월말까지 우리의 對 중국 수출은 지난해 상반기보다 21% 늘어난 28억 9천만달러, 수입은 40.6% 늘어난 25억 6천만달러에 달했다. 이러한 추세로 가면 올해 양국간 교역규모는 수교 2년만에 1백억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중국은 미국 일본에 이어 이미 우리 나라의 3대 교역대상국으로 부상했다. 중국쪽에서도 한국이 6대 교역 대상국이어서 양국간 경제적 긴밀도를 말해 주고 있다. 짧은 기간에 이처럼 양국 교역규모가 급증한 것은 산업구조가 상호보완적이었기 때문이다. 우리가 자본 및 기술집약적 상품을 수출한데 비해 중국은 1차 상품과 노동집약적 상품을 우리에게 수출하였다.

한편 한국의 대 중국 농림수산물 교역규모는 1988년 2억 7천만달러에서 1993년 10억 9천만달러로 4배나 증가하였다. 한국의 대 중국 농림수산물 수출은 지난 3년간 6천만달러 수준에 지나지 않는 미미한 실정이다. 결국 중국에 대한 농림수산물 수출은 양국 교역에 있어 무시할 정도이다. 이에 따라 한국의 대 중국 농림수산물 무역수지 적자는 1988년 2억 4천만달러에서 1993년 10억 2천만달러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표 7 **한국의 대 중국 농림수산물 교역추이**

단위: 백만달러

연 도	수 출	수 입	교역(수출+수입)	무역수지
1988	15	256	271	-241
1989	22	347	369	-325
1990	13	418	431	-405
1991	13	823	836	-810
1992	13	1,080	1,093	-1,067
1993	35	1,055	1,090	-1,020

자료 : 농림수산부, 「통상자료 및 농업통상소식」, 1990-1993

농림수산 분야에서, 중국은 한국의 수입시장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중국과의 교역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다루어져야 할 부분 가운데 하나가 보다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수입관리 방안과 수출 증대를 통한 무역수지 개선 방안이다.

한국은 70년대 후반에 들면서 농림수산물 수입비중이 점차 커졌으며 농산물 수입의 대부분이 미국 시장에 크게 의존하여 왔다. 그러나 농림수산물 수입에서 미국산의 비중은 1980년대초 50% 수준에서 1980년대말에는 43%로 감소하였다. 한중간 교류가 활성화된 1991-92 기간중에 미국의 비중은 30% 이하로 크게 감소하였다. 한국이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농림수산물의 비중은 1989년 6.1%에서 1993년 15.1%로 크게 증가하였다. 이러한 수입선 전환품목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사료곡물이며, 그 가운데서도 옥수수가 가장 두드러진 품목이다.

한중간의 교역이 활성화된 1992~93 기간의 농림수산물 교역을 살펴보면, 옥수수 수입이 6억 1천만달러로 전체의 58%를 차지한다. 그밖에 대두박, 면실유박, 밀기울 등 기타 사료수입이 8천만달러로 옥수수와 사료곡물의 수입이 전체 수입의 65%에 이른다.

사료곡물 다음으로는 정부의 가격안정용 또는 비축용 농산물 수입을 들 수 있다. 비축용 수입농산물은 참깨, 땅콩, 고추, 팥 등으로 전체 수입액의 약 7~8%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결국 우리의 필요에 의하여 수입되는 사료용 곡물과 가격 안전용의 참깨, 땅콩 등 비축용 농산물을 제외한 나머지 품목의 수입비중은 상대적으로 그리 크지 않다(약 25% 정도). 기타로 분류될 수 있는 이들 품목은 30여 가지가 되며 수입액은 1993년에 3억달러 수준이다. 품목당 평균 수입액은 1천만달러 정도에 불과하다.

기타로 분류될 수 있는 품목의 1993년도 수입을 보면 한약재(4천2백만달러), 당면(1천1백만달러), 고사리(1천1백만달러), 녹용(1천만달러), 표고버섯(1백만달러), 메주(2십만달러), 은행(2백만달러), 도토리(2백만달러), 사향(4백만달러), 오리고기(2백만달러), 파(2백만달러), 감초(8백만달러) 등이다. 수산물로는 삼치, 피조개, 조기, 골뱅이 통조림 등이 4천5백만달러 정도 수입되었다. 그밖에 임산물로는 나무젓가락, 원목, 합판 등이 수입되었다.

이와 같은 교역 현황으로 보아, 중국산 농림수산물을 수입할 때 한약재, 고사리 등 기타로 분류될 수 있는 품목들이 문제가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중국산 농림수산물 수입의 65%를 차지하는 옥수수와 사료곡물은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된다.

이들 품목은 한국의 축산업 발전을 위해서 어디서든 저렴한 가격으로 수입을 해야 하는 품목이다. 이러한 목적에 따라 지리적으로 가깝고 가격도 낮은 중국산이 미국 등 기타 국가들을 제치고 수입되고 있는 것이며, 품질에서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수산물과 일부 임산물(고사리, 도토리, 표고버섯)을 제외하면 문제의 소지가 있는 농축산물과 산림부산물은 20여개 품목으로 압축된다. 그런데 이들 품목은 다시 수입자유화 품목과 수입규제 품목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러한 구분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 수입규제

표 8 **한국의 대 중국 농림수산물 수입동향**

단위: 백만달러

	연도별			증감률		1993년 전체 농림수산물 실적
	1991	1992	1993	92/91	93/92	
〈농수산물〉	823.1	1079.6	1055.0	31.2	▲ 2.3	
사료용	489.9	640.7	579.1	30.8	▲ 9.6	819.6
옥수수	382.4	560.0	497.5	46.4	▲ 11.2	517.9
기타	107.5	80.7	81.6	▲ 25.0	1.1	301.0
곡물류	92.5	127.5	178.6	37.8	40.1	912.8
옥수수	52.8	64.7	113.3	22.5	75.1	184.6
참깨	12.1	24.8	28.9	105.0	16.5	28.9
기타	27.6	38.2	36.4	37.7	▲ 4.2	699.3
한약재	35.6	49.7	42.0	39.6	▲ 15.5	85.6
기타	26.6	39.94	20.9	50.2	▲ 47.7	80.2
당면	16.3	16.2	10.9	▲ 0.6	▲ 32.7	11.0
파	-	-	1.9	-	-	1.9
고추	4.6	8.3	1.0	80.4	▲ 88.0	1.0
메주	1.2	1.1	0.2	▲ 8.3	▲ 81.8	1.1
고추장	0.06	0.24	0.1	300.0	▲ 58.3	0.3
기타	4.44	14.1	6.8	217.6	▲ 51.8	64.9
수산물	8.3	15.0	21.5	80.7	43.3	39.8
〈축산물〉	0.6	2.8	1.9	366.7	▲ 32.1	7.2
〈임산물〉	44.7	42.3	58.5	▲ 5.4	38.3	814.2
고사리	13.1	11.4	11.3	▲ 13.0	▲ 0.9	11.3
젓가락	7.1	4.8	2.4	▲ 32.4	▲50.0	5.3
도토리	3.1	2.6	1.8	▲ 16.1	▲30.8	1.8
은행	2.0	2.6	2.5	30.0	▲ 3.8	2.5
이쑤시개	1.2	1.1	1.2	▲ 8.3	9.1	1.4
표고버섯	1.4	3.5	0.8	150.0	▲77.1	0.8
감	2.0	1.4	0.5	▲ 30.0	▲64.3	0.5
기타	14.8	14.9	38.0	0.7	155.0	790.6

주: 〈축산물〉에 포함되어 있는 녹용, 사향은 한약재에 포함하였으며 축산물은 오리고기임.

자료: 1993년 농림수산물 수출입 동향, 농림수산부 농업협력통산관실, 1994. 3.

품목의 경우 관세화에 의한 고율관세 부과로 수입이 통제될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수입규제 품목이 중국으로부터 수입되고 있는 것은 정부의 가격안정정책에 의한 비축 필요성 때문이었다. 따라서 정부의 의지에 의해 수입이 조절될 수 있기 때문에 수입관리에 문제가 적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수입규제 품목에 속하는 것으로는 참깨, 고추, 땅콩, 녹두, 팥 등이다.

3. 三國間 농산물 교역의 문제점

3.1. 남북한간 농산물 교역의 문제점

남북한간의 교역이 1988년 「7·7 선언」과 「기본합의서」 및 「부속합의서」의 발효에 따라 남북한 경제교류가 확대·발전되어 온 것이 사실이나 반면에 대북한 경제교류 및 협력을 추진하는 데에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지적들이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다. 우선 거시적 관점에서 경제외적 요인에 의한 경제협력 추진의 부진과 정부 부처간 정책조정의 미흡, 그리고 민간기업간 전시적 과당경쟁의 노출 등이다. 농산물 교역에서도 지금까지의 남북한 상호교류의 면면을 보면 전체 농림수산물의 교역에서 북한으로부터 반입할 만한 잉여 농산물이 거의 없다는 사실이다. 현재 가중되고 있는 북한의 식량난이 이를 입증하고 있다.

북한은 식량생산 위주의 계획생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측에서 요구하는 품목이 콩, 팥, 녹두, 메밀 등 잡곡류를 대외적으로 수출할 만한 여유 물량이 거의 없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교역에 앞서 북한의 농업사정을 정확히 파악하고 어떠한 농산물이 재배되고 있는가를 정확히 파악해야 할 것이다. 동시에 각종 농업관련 정보가 사전에 입수되어 상호 정보교환을 통한 교역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남북한의 농산물 교역형태는 1992년의 경우 남북교역규모(승인기준)가 2억달러가 넘는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남북간 교역을 공식 인정하려 하지 않고 간접교역만을 고집하고 있는 실정이다. 초창기의 남북교역은 해외중개상을 통한 간접교역 형태였으나 점차 해외 현지법인, 해외지사를 통한 간접교역 형태로 발전하였으며 최근에는 서류상 회사(Paper Company)를 통한 간접교역이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간접교역은 결국 자국의 이익보다는 홍콩, 중국 등 제3국의 중개상에만 이익을 전가시키는 결과만 초래된다.

한편 수입업체들이 자유화된 품목에 대하여는 無稅로 무분별하게 국내에 반입함으로써 국내 농수산물의 가격하락을 초래, 국내 시장질서를 교란하고 농가에도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다. 더구나 북한산과 국내산과의 가격차이가 반입업체에 의해 독립적으로 결정됨으로써 국내 유통질서가 크게 문란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다 국내 수입업자들의 속성을 고려할 때 중국산 또는 제3국산을 북한산으로 위장하여 반입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관세가 높을수록 위장반입의 가능성이 커지며 북한산의 경우 식물검역규제가 없어 병충해 예방에 한계가 있으며 또한 동식물 방역문제도 동시에 발생될 것이다.

북한은 농산물 교역의 결재방식도 외화부족 때문에 경화결재보다는 과거부터 구상무역을 선호하고 있는 것이 남북교역의 장애가 되고 있다. 예를들면 1991년과 1992년에 걸쳐 반출된 쌀과 마늘의 대응품이 북한으로부터 일부만 반입되었다. 따라서 계약된 잔여물량에 대한 교환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3.2. 한중간 농산물 교역의 문제점

한국은 1980년대 중반의 국제수지 흑자

기조에서 최근에는 큰 폭의 국제수지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1991년도의 96억달러에서 1992년에는 51억달러, 1993년에는 약 16억달러의 국제수지 적자가 발생하였다. 최근 몇 년간 국제수지 적자가 크게 감소되고 있기는 하나 국제수지균형 유지 문제는 한국경제의 현안으로 부각되고 있다.

그런데 국제수지 적자의 중요한 요인의 하나가 농림수산물 수입에 의한 것으로, 그 규모가 클 뿐만 아니라 증가 폭도 커지고 있다. 농림수산부문의 무역수지 적자는 1992년도의 43억 달러에서 1993년도에는 전년도보다 19% 증가한 51억달러로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전체 무역수지 적자의 주요인으로 등장하고 있다.

한국의 이러한 농림수산물 수입 증가 추세와 함께 앞에서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중국산 농림수산물의 수입 증가가 두드러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문제점이 크게 부각되고 있다. 1993년도 대중국 농림수산부문 무역수지적자는 10억달러로 전체 농림수산부문 무역수지적자 50억 5천달러의 20%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농림수산부문의 무역수지개선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수입자유화 품목들은 수입업자, 수입량, 수입시기 등에 대한 특별한 규제가 없기 때문에 수입관리에 많은 문제가 따른다. 이러한 문제는 중국산뿐만 아니라 어느 국가에서 수입을 하든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문제이다. 그러나 수입관리상의 어려움은 중국산 농산물의 경우 상품의 유사성, 커다란 가격차, 지역적 근접성에 따른 밀수 가능성 때문에 더욱 크다.

값싼 수입 농산물이 국내에 들어오면 필연적으로 국내 생산자들의 피해를 유발시키게 된다. 산업전체 또는 국민경제 전체로 볼 때에는 소량 또는 소액에 지나지 않는 것들이라도 어느 해당 농산물을 생산하는 특정 생산자에게는 큰 피해를 입힐 수 있다. 더구나 중국산 농산물의 경우 국내산과의 식별이 어려워 유통단계에서 국내산으로 둔갑되거나 국내산과 혼합되어 판매되어 생산자는 물론 소비자에게도 피해를 주고 있다. 생산자들은 이러한 유통질서 문란만 바로잡혀도 생산자에 대한 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으며 품질에 의한 상품차별화로 경쟁도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값싼 중국산 농산물이 국내산으로 위장되어 유통됨으로써 시세차익을 노린 수입업자들의 무분별한 수입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일부 가격차가 큰 품목들(예: 참깨)은 밀수입되는 경우도 많다. 이러한 무분별한 밀수입은 식품안정도 검사 및 감독의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어 국민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뿐만 아니라 농산물 밀수입은 식품안전도는 물론 병충해 유입에도 무방비한 상태를 초래하게 된다.

4. 남북한간, 한중간의 농산물 교역 전망

4.1. 남북한간 농산물 교역 전망

남북한의 경제협력의 기본목표는 경제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통일한국 경제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하고 통일민족의 경제적 복지를 극대화하는 것이므

로, 남북한 경협은 단기적인 경제적 이익 추구라는 차원에서라기보다는 중·장기적으로 남북한 경제통합의 실현과 남북한 동질성 회복이라는 차원에서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이 기본전제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본정책 방향은 물자교류를 시작으로 경제협력, 인적교류 등 점진적이고 단계적으로 대북관계가 추진되어 나가야 할 것이다. 남북한의 경제협력은 단계적으로는 남북한 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상호 주권과 명분을 존중하면서 신중하게 추진해 나가야 할 사안이다. 특히 농산물교역은 경제교류의 가장 기본적인 단계이며 일반 국민의 기초식품이라는 점에서 상호 보완적인 품목의 경우 남북한 관계 개선의 파급효과가 큰 분야이며 쌍방의 수용이 용이한 교역대상이다.

더구나 남북한의 소비생활수준의 차이로 인하여 공산품 교역의 추진에는 여러 가지 제약이 따르나 남북한간에 기후 풍토가 동일한 지역에서 생산한 이질성이 없는 농산물 교역은 그 실현과 확대 발전의 가능성이 높은 분야이다.

남북한간 농산물교역 확대를 위해서는 상업적 교역이라기보다는 북한측의 명분과 실리를 좀더 살려 주는 방향에서 다소는 모험과 양보가 따르는, 다소의 경제적 손실을 감내하는 입장에서 추진함이 장기적으로는 남북한간 농산물 교역을 활성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북한과의 농산물 교역과정을 살펴보면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실제로 북한에서 반입할 만한 농산품은 거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 근거로 현재 반입되고 있는 품목들을 보면 고사리, 도토리, 한약재 등 임산물들로 대부분 노동력을 이용해서 채취한 품목들이며 실제로 논밭에서 재배된 농산물은 많지 않다. 1991-93년 동안 북한의 주교역국인 구소련연방, 중국, 홍콩, 일본 등에 곡류나 잡곡류의 수출실적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또한 1989-92년 동안 정부가 반입 승인한 품목은 고추, 팥, 감자, 땅콩, 메밀 등 다양하나 실제로 반입 통관되고 있는 품목은 감자에 국한되어 있는 실정이다.

북한은 사회주의 체제하의 철저한 계획생산과 계획수출을 시행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만성적인 식량부족을 해소하기 위하여 매년 생산계획을 세울 때 그 우선순위를 식량생산에 먼저 배분하고, 다음에 채소생산에, 마지막으로 외화획득을 목적으로 과수, 특용작물, 양잠 등에 배분하고 있다. 이와 같이 식량생산에 우선순위를 두다보니 한국측이 요구하는 품목, 즉, 팥, 녹두, 메밀, 콩 등 잡곡류 등은 극히 제한 생산 할 수밖에 없다. 만약 북한이 부족한 식량을 확보하기 위해 과거처럼 쌀을 수출하고 대신 양이 많은 밀가루를 수입하는 것처럼 남한에서 매년 수입되고 있는 특용작물을 재배, 남한으로 반출하고 남한의 쌀, 보리 등을 북으로 반입해 가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이럴 경우 한국측이 만성적 생산부족으로 수입이 불가피한 농산물 중 북한에서 생산가능한 품목을 사전에 우선적으로 계획생산에 반영될 때 상호 보완적 교역이 가능해질 것이다.

그밖에 남북한 농산물의 교역확대를 위해서는 단순한 교역차원이 아닌, 한 단계 높인 생산분야의 협력을 병행한 "계약생산"을 통한 교역 추진이 앞으로의 통일 전단계의 남

북한 경제공동체 형성을 위해서도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방법은 현재 비농업분야에서 북한의 값싼 노동력을 활용하고 남한의 자본과 기술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되거나 성사되어 실시되고 있는 임가공 형태의 경제협력 방식과 유사한 교역방식이다.

"계약생산" 방식은 현재 북한이 선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거의 합의 단계에서 핵문제로 연기되었다. 이 방식은 남한에 비해 밭면적이 두 배나 많은 북한의 밭작물에 한해서 가능하며, 우리 나라의 만성적 부족 농산물에 대해 북한의 생산 여건을 감안, 연간 농산물 생산계획에 반영, 단계적으로 품목과 물량을 증대시켜 나갈 수 있다.

계약생산은 지역적 근접성에서 오는 수송비 및 부대비용 절감과 국민의 기호에 맞는 우리 농산물을 공급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남북한 계약생산에 의한 교역이 원활히 진행될시는 다음 단계로서 북한에서 계약생산된 물량을 일시 반입이 아닌 현지 보관을 위해 생산단지 또는 항구 인근에 저장시설을 위한 합작건설도 가능할 것이다. 또한 계약재배로 일시에 대량생산, 출하됨으로써 부패, 변질성이 큰 품목의 경우 예를 들면 감자 같은 품목은 현지에 전분공장을 합작 건설하여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다. 그리고 북한이 국제연합 공업개발기구에 희망한 건강식품 및 과일쥬스 가공공장, 수산물 가공공장 등을 건설함으로써 상호간의 신뢰증진과 경제교류 활성화의 촉매제가 될 것이다.

남북한 교역조건은 현재의 간접교역 방식에서 직교역 방식으로 전환되어야 할 것이며, 결재방식도 가능한 경화결재 방식이 바람직하나 북한의 현재 경제사정으로 보아 구상무역도 가능하다. 농산물 교역대상 품목의 가격결정은 국제가격 수준을 원칙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면세되는 관세상당액 범위에서 우대를 해 주는 것도 북한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는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국내 농가수취가격 이내의 수준까지도 메리트를 줄 수 있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 특히 계약생산시 농산물가격을 남한의 농가수매가격으로 설정하는 경우에는 국제가격과 국내 농가수취가격의 차가 현저하기 때문에 북한농가 입장에서는 보다 유리할 것이다. 남북한 교역에서는 관세가 부과되지 않아 통제가 어렵다. 따라서 국내수급 및 가격안정을 위해 정부대행기관으로 하여금 반출입 제한조치를 강구할 필요가 있다. 최근 중국산이 북한산으로 위장 반입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세관당국과 공조체제를 확인, 위장반입 단속을 철저히 하고, 원산지 확인과 동식물 검역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남북한 직교역 확대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북한 경제관련 자료를 적극 공개하여 기업의 자체적인 판단하에 대북한 교역 가능품목 발굴 및 대북 거래선 확보에 나설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는 것도 교류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다.

4.2. 한중간 농산물 교역 전망

최근 몇 년간 중국산 농산물 수입은 사회적으로 많은 관심 및 우려의 대상이 되어 왔다. 이제 많은 한국인들이 중국산 농산물을 값싼 저급품 또는 식품안전도상에 문제가 있는 물건으로 인식하고 있다. 생산자들에게는

커다란 위협을 느끼게 하는 것이 또한 중국산 농산물이다. 그러나 많은 중국산 농산물이 값싸게 수입되어 물가안정이나 국내 축산업은 물론 식품가공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있음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한중간의 농산물 교역은 새롭게 정리되고 조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첫째, 중국의 농산물 수출에 대한 자율규제가 필요하다.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중국 농산물의 대부분은 한국의 축산업발전과 농산물 가격안정을 위해 수입되고 있다. 이들 품목의 대부분은 한국의 수입규제 품목으로 정부의 필요성 여부에 따라 수입이 조절될 수 있다. 이들 품목의 수입비중은 70%를 넘는다. 결국 중국산 농산물 수입의 1/4 정도에 지나지 않는 일부 품목 때문에 중국산 농산물은 필요 이상의 부정적 시각에서 투영되고 있다. 이는 중국에게는 물론 한중간의 우호관계 유지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동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었던 품목들은 한약재, 당면, 고사리, 복숭아통조림, 표고버섯, 도토리, 은행, 메주, 토끼고기 등으로 수입액이 많은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이들 품목에 대한 한국 시장이 넓지 못하기 때문에 수입규모가 그리 크지는 않았으나 한국인들에게는 중국산 농산물의 홍수와도 같은 느낌을 받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는 국내산업과 소비자 건강을 고려하여 여러 가지 대응방안을 모색하게 되었다. 탄력관세제도의 적용에 의해 고사리, 표고버섯, 무말랭이, 미꾸라지, 골뱅이통조림, 메주, 도토리, 이쑤시개 등의 관세가 최고 100%까지 인상되었다. 그밖에도 원산지표시제의 강화, 산업피해구제제도의 활용, 동식물검역제도의 보완 등 대책이 시행되고 있다. 이러한 수입규제 조치의 강화로 중국산 농산물의 수입증가세는 크게 둔화되었다. 1991년에는 수입증가율이 전년대비 97%로 대폭 증가하였으나 1992년에는 전년대비 31.2%로 다소 감소하였고, 1993년에는 전년대비 -2.3% 감소하였다. 또한 관세인상과 동식물검역 강화 및 불합격품에 대한 폐기 및 반송조치의 강화로 한중간 교역마찰을 가져오기도 하였다.

따라서 중국은 농림수산물 수출의 25% 정도에 지나지 않는 30여개 품목에 대한 수출 자율규제를 시행함으로써 통상마찰을 완화시키고 자국 상품의 인식도를 제고시킬 필요가 있다. 수출 자율규제에 의한 수출 감소가 전체 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무시할 정도에 불과할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자국 상품에 대한 인식 제고와 통상마찰 해소로 전체 교역규모를 증가시키게 될 것이다.

둘째, 중국은 수출 농산물에 대한 품질향상으로 중국산 농산물에 대한 제품인식을 제고시킬 필요가 있다. 최근 한국의 소비자들 눈에 비친 중국산 농산물은 저품질의 대명사와도 같다. 이러한 현상은 장기적으로 중국산 농산물 수입을 감소시키고 더 나아가서는 중국산 제품 전반(비농산물을 포함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현재 한국시장에서 판매되고 있는 중국산 농산물 가운데 한국산과 혼합되거나 한국산으로 위장되어 판매되는 경우를 제외하면 가정에서 직접 소비되는 경우는 많지 않다.

그러므로 원산지표시제도의 강화, 포장 및 규격제도의 강화 등으로 유통제도가 정비되

면 중국산 농산물의 불법유통은 크게 줄어들게 될 것이며 가격과 품질로 소비자에게 평가받게 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품질 향상 없이는 시장확대가 불가능한 것이며, 중국은 이러한 장래에 대비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셋째, 한국은 농산물 수입국으로서 중국의 역할에 대해 새로운 평가와 관계정립이 필요하다. 현재, 중국은 GATT 가입을 적극 추진중에 있으며 앞으로 1-2년 사이에 결론이 날 전망이다. 중국이 GATT에 가입하면, 한국과 같은 GATT 회원국의 자격으로 교역에 있어 동등한 대우를 필요로 하게 된다. 따라서 수입제한조치 등에 있어 한국은 한층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이다. 반면 한국은 UR 협상에 따라 주요 농림수산물을 개방해야 할 입장에 있다. 이들 품목 가운데는 곡물류나 쇠고기, 돼지고기, 고추, 마늘, 양파, 사과, 배, 밀감 등 주요 농축산물이 포함되어 있다. 수입개방폭의 확대는 필연적이며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의 역할은 증대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한국은 무역자유화 시대를 맞아 농산물 수입선으로서의 중국의 역할에 대해 새로운 시각에서 접근이 필요하다. 중국산 농산물 범람에 대해서는 그동안 여러 가지 조치가 취해졌으며 국민모두가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중국산 농산물 수입의 70% 이상이 축산업 발전과 물가안정을 위해 수입되고 있음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대부분의 중국 농산물이 우리의 필요에 의해 미국 등 기타 국가들로부터 중국으로 수입이 전환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수입에 대처할 필요가 있다. 수입이 무조건 한국농업에 해롭다는 시각보다는 보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원료농산물 또는 부족 농산물을 확보하고 공급하려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중국 농산물 시장에 대한 정보분석과 원료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투자가 필요하다. 중국은 최근 산업화정책으로 농업경시 풍조와 농촌을 떠나는 인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농산물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가속화될 전망이다. 따라서 중국산 농산물의 안정적 수입을 위해서는 다각적인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한국은 중국과의 농업부문 교역에 대해 지나친 피해의식만을 가질 것이 아니라 국제화, 전문화의 방향에서 상호보완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1993년도 중국과의 교역규모는 91억달러였으며, 한국은 12억 2천만달러의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였다. 이러한 추세되로라면 1994년도에는 교역규모가 100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1993년 농림수산물의 대중국 수출은 34.6백만달러로 전년도보다 158% 증가하였고 수입은 1055.0백만달러로 전년도보다는 2.3% 감소되었기는 하나 전체 교역 규모에서 매년 흑자기조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농업부문의 수입규제적 대중국 농림수산물 교역정책의 입지를 한층 더 좁힐 것이다. 따라서 보다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자세로 교역에 나서야 할 때이다. 노동집약적 농산물(예: 고사리, 무말랭이, 버섯 등)과 토지조방적 농산물(예: 옥수수, 콩, 수수, 조 등)은 중국으로부터 값싸고 위생적인 상품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자본 및 기술집약적 고부가가치 농산물, 농업자재산업, 식품가공산업 등은 한국이 전문화하여 수출산업 내지는 수입대체산업으로 발전시키는 한편 중국에 대한 투자를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수출시장으로서의 중국은 거대한 자원과 인구를 가진 또 하나의 미개척 잠재시장임을 인식해야 한다.

5. 결 론

남북한간에는 아직도 냉전 상태가 지속되고 있기는 하나 최근 미국과 북한간의 협상타결, 그리고 김일성의 사망에 따른 개혁·개방에 대한 기대 등을 고려할 때 남북교류는 한중수교와 함께 우리 경제에 새로운 활동무대를 제공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와 기회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동북아 지역의 정치·경제의 발전과 안정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3국간의 경제교류 협력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들 국가와는 상호 보완성 있는 상품의 교류는 물론 상호 경쟁·협력하는 경쟁적 공존관계로의 발전도 가능할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남북한이 통일 이전에 경제사회의 각 분야에서 가능한 부문부터 교류·협력을 통해 신뢰기반을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점차 남북한 경제통합의 실현과 민족의 동질성을 회복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우리의 대북정책 방향은 물자교류를 시작으로 경제협력, 인적 교류 등 점진적이고 단계적으로 추진하되 남북한 관계의 특수성을 고려, 상호 주권과 명분을 존중하면서 신중하게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특히, 농산물 교역은 경제교류의 가장 기본적인 단계이며 일반국민의 기초식품이라는 점에서 상호 보완적인 교역대상이다. 더욱이 남북한 소비생활 수준 차이로 공산품 교역에는 제약이 따르나 기후풍토가 동일한 지역에서 생산한 이질성이 없는 농산물 교역은 실현 가능성이 높은 분야이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남북한 교역관계를 살펴보면 북한에서 반입할만한 농산품은 거의 없다. 이는 북한이 사회주의 체제하의 계획생산 체제인데다 만성적인 식량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자원을 식량생산에 우선 배분함으로써 우리 측이 요구하는 품목의 생산은 극히 제한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남북한 농산물 교역은 단순한 교역차원이 아닌 생산분야의 협력을 병행한 "계약생산"을 통한 교역 추진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계약생산은 북한의 값싼 노동력 활용과 남한의 자본과 기술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우리 나라의 만성적 부족 농산물에 대해 북한의 생산 여건을 감안, 연간 농산물 생산계획에 반영, 단계적으로 품목과 물량을 증대시켜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북한과의 계약생산은 지역적 근접성에서 오는 수송비 및 부대비용 절감과 국민의 기호에 맞는 우리 농산물을 공급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또한 계약생산된 물량의 현지 보관을 위해 생산단지 또는 인근 항구에 저장시설을 갖추고 부패, 변질성이 큰 품목의 경우 가공공장의 합작건설도 가능하다.

한중간의 농산물 교역은 한중수교 이후 최근 몇년간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중국농산물의 수입비중은 전농산물 수입의 20%를 차지할 만큼 비중이 크다. 비중이 큰 만큼

사회적으로 많은 관심과 우려의 대상이 되어 왔다. 앞으로 대 중국 농산물교역은 지역근접성과 수송비 절감 등의 이점을 고려할 때 기존 수입선이 중국으로 대폭 전환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수입국으로서의 한국은 수입안전장치로서 원산지 표시제, 탄력관세제도, 산업피해구제제도, 동식물검역 및 위생검사 강화, 소비자에 대한 홍보강화 등의 시책을 강력히 시행하고 있다. 특히 중국산 농산물이 국내산과 혼합되어 판매되거나 국산으로 둔갑되어 판매되는 일이 없도록 강력한 단속의지를 보이고 있다. 수출국으로서의 중국은 이러한 점을 중시 농산물 수출로 인한 한국 국민들의 통상정책에 대한 불만해소와 중국산 농산물에 대한 인식도 제고를 위해서 일부 농산물에 대한 품질 고급화와 수출자율규제제도를 시행하여야 한다. 이러한 노력은 한중 양국간의 우호증진과 통상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

한편, 수입국인 한국은 농산물 수입이 무조건 한국에 해롭다는 시각보다는 국제화, 전문화의 방향에서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보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원료농산물 또는 부족한 농산물을 확보하고 공급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중국 농산물 시장에 대한 정보분석과 원료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투자가 필요하다. 중국은 최근 산업화 정책으로 농업 경시풍조와 농촌을 떠나는 인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농산물 가격도 상승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앞으로 가속화 될 전망이다. 따라서 중국산 농산물의 안정적 수입을 위해서는 다각적인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지금까지의 농산물 교역정책이 소극적, 방어적 자세로 일관 되어 온 사실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보다 적극적으로 상대국에 요구하고 또한 시장개척에도 힘쓰는 적극적, 공격적 농산물 교역정책이 필요한 시기이다.

참 고 문 헌

국토통일원, 「北韓의 經濟와 貿易 展望」, 1990.

김운근, "북한의 농업현황과 남북한 농산물 교류 전망," 「농촌경제」, 제13권 제2호, 1990. 5.

———, 「남북한 농림어업의 상호교류 전망」, 농수축산신문사, 1990. 5.

농림수산부, 「93년 농림수산물 수출입동향」, 1994. 3.

大韓貿易振興公社, 「北韓의 對外 貿易動向」, 1992, 1993.

최세균외, "한·중 농업부문 교역현황 및 변화전망," 「농촌경제」, 제15권제3호, 1992.

韓國開發硏究院, 「南北韓 經濟共同體形成을 위한 政策課題」, 1993. 10.

———, 「南北韓 經濟關係發展을 위한 基本構想」, 1991. 9.

韓國農村經濟硏究院, 「한·중 농림수산 분야 협력방안」, 중국농업시리즈 2」, 1992. 12.

한국무역협회, 「北韓 經濟動向」, 1994.

日本貿易振興會, 「北朝鮮の經濟と貿易の展望」, 1991-93.

農業出版社, 「中國農業年監」, 1990-93.

中國統計出版社, 「中國統計年監」, 1990-93.

中國財政經濟出版社, 「中國對外經濟貿易年監」, 1990-93.